

연중 제 21 주일:

2016 년 8 월 21 일 (다해)

# 산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6 권 30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 30 분(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오후 2-6 시), 화.수요일 (오전 9:30 시-오후 8 시). 목 (오후 2-6 시),

금요일(오전 9:30 시-오후 6 시).

미 사 성 가	입당 ( 1 )	봉헌 ( 512 )	성체 ( 502 )	파견 ( 34 )
<p><b>2016 년도 구역 및 구역원 명단</b></p> <p><b>1 구역 :</b> 유 마리아(구역장), 이 바실리오, 배 실비아, 배 안젤로, 양 유리안나, 오 베드로, 오 루시아, 유 요한, 손 아놀드, 손 잼마, 최 요안나, 최 마태오</p> <p><b>2 구역:</b> 이 마틸다(구역장), 이 그레이스, 장 글라라, 이 요한, 이 요셉, 이 데레사, 전 제노베파, 김 안드레아, 김 마르타, 데니엘 한, 사비나</p> <p><b>3 구역:</b> 김 헬레나(구역장), 박 니콜라스, 박 마가렛, 김 마론, 김 데오도라,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허 루카, 배 시몬, 김 글라라</p> <p><b>4 구역:</b> 김 유스티나( 총 구역장), 홍마르코, 홍아네스,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이 글라라, 이 안드레아, 이 안젤라, 정 바오로, 정 릅타, 김 유수티노</p>		<p><b>성소를 위한 기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li> <li>●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li> <li>○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li> <li>●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li> <li>○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li> <li>●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li> <li>◎ 아멘.</li> </ul>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8/21	박 니콜라스	김 헬레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8/28	이 마틸다	김 유스티나	성인 복사
9/4	유 요한	이 바오로	허 벤자민, 박 다니엘
9/11	이 그레이스	김 헬레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9/18	박 니콜라스	김 유스티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제 1 독서' (한글)/ '제 2 독서' (영어).이 조연.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8/14/16	\$276	0	\$450

새 신자 교육 9월 부터 시작

9월 부터, 한인공동체 새 신자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 합니다. 주위에 새 신자 교육을 받아야 되실분이나, 관심이 있으신분들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박 마가렛 자매님께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이나 기타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모든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떼제 공동체를 추억하며

이 세라 진이아가다/KBS 기상 캐스터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 해 본 적이 있으시죠? 저는 다시 한 번 프랑스 떼제 공동체를 가고 싶습니다. 스물세 살 때 혼자 6개월 정도 유럽 배낭여행을 했는데, 그때 떼제 공동체를 거쳐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제 인생의 화양연화는 과거에 있지도, 미래에 있지도 않고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 하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떼제 공동체에 머물고 순례자의 길을 걸었던 그 시간은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사실 여행을 떠날 당시 제 마음은 참 황폐했습니다.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휴학을 해 일 년 정도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 떠난 여행이었는데, 전혀 신이 나지도 설레지도 않았습니 다. 저는 여행을 하며 뭔가를 경험해보고 싶 다기보다 그저 한국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되도록 멀리, 되도록 오래. 취업 준비생이었던 저는 저 자신이 한국 사회에는 영 적합 하지 않은 인간 같아 보였습니다. 모든 게 다 경쟁인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에 저는 지나치게 게으르고, 굼땀습니 다. 원대한 꿈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저 '평생 좋아하는 책이 나 읽고 글이나 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정도였습니다. 굶어 죽기 딱 좋은 인간형인 셉이지요. 지금도 딱히 경쟁에 최 적화된 인간으로 거듭난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떼제에서 보낸 시간이 저를 변화시킨 것만은 분명합니다.

1940년 로제 수사가 프랑스의 '떼제'라는 작은 마을에 설립한 이 공동체에서는 누구나 머물 수 있습니다. 공동 기도 시간이 있고, 세계 각국에서 모인 청년들과의 토론 시간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다면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주로 '침묵의 숲'이라 불리는 (그곳에서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곳에 드러누워 구름이 모양을 바꾸며 천천히 이동하는 모습을 보다 낮잠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러다 심심해지면 마을을 돌아다니며 가족 때를 구경하고, 어느 집 돌담에 기대 햇살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삼 주 정도의 시간을 보내다가 떠날 시간이 가까워 오자 문득 깨달았습니다.

공동체 소식

싼 클레멘테 성당 봉사자를 위한 저녁 식사

매년 전통적으로 행하는 전 심부님 생신 축하 겸, 싡 클레멘테 성당 봉사자를 위한 저녁 만찬이 8월 14일 오후: 6시에 새로히 마련된 야외 공연장에서 성황리에 거행되었습니다. 봉사자를위한 만찬을 준비하기위해 수고하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주일 미사 시간 변경 (오전 9:00 시)

한인 공동체 미사시간이 오는 9월부터 오전 8:00 시에서 오전 9:00 로 변경 됩니다.. 새로운 미사시간에 더 많은 신도들이 참여 할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 성당 골프 대회, 10월 2일, 12시 30분. 리오 브라보 CC

매년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한인공동체 골프대회를 10월 2일 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활기차고, 즐거운 골프대회를 위해, 준비위원으로 일하실, 자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관심이 있으신분은 이 요한 총무님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공부 안내

성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서로 배움을 고무시켜주기위해, 이번 9월부터 시작할, 성경공부 그룹을 모집합니다. 성경을 함께 읽어가면서,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을 외우거나, 써 가지고 오셔서, 그룹으로 나눔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 유스티나 총 구역장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모임은 8월 28일 미사후에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제 마음이 다시 활기를 띠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하늘이 참 파랗구나, 구름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아름답구나, 햇살은, 바람은, 그리고 사람은 참 따뜻하구나' 하고, 마치 그것을 처음 알게 된 사람처럼 설레었습니다. 라틴어로 된 떼제 성가를 수백 명의 청년이 합창하는 걸 듣고 있을 때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함께 기 도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떼제 이후로 저는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하나 알게 됐습니 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시 그것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골칫거리로부터 거리를 두고 떠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지만 적어도 다시 시작할 용기, 다시 문제의 핵심으로 뛰어들 수 있는 용기를 주곤 합니다.

<서울주보에서>

[교리상식]

영성체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성체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보존하고 새롭 게하며 성장시키는 양식입니다. 또한 영성체는 주님과 이루는 친교와 교회와 일치 를 증대시키고 소죄를 없애 주며 대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신자 재교육 교리상식 [미사전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